

하늘 탐구했듯 광활한 바다서도 위안을 얻다

April 14, 2023 | 김신성 기자



하늘 탐구했듯
광활한 바다서도
위안을 얻다

바이런 킴이 지어 붙여진 캘리포니아대라고 샌디에이고 국립미술관에 수장된 그림을 담았다.

B.Q.O.' 세 연작 - 바이런 킴 개인전

부산-김신성 선임기자 skkim45@segye.com

"바다 수영을 하다 보면 사이에 하늘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다음으로 물속이 자주 보인다. 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보이는 수면의 모습은 그다음 차지다."

작가 바이런 킴의 바다(海) 연작 'B.Q.O.' 시리즈는 삼·중·하 3점의 캔버스 패널이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가장 위 화면은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보게 되는 하늘이고, 가운데 화면은 물의 표면과 커기에 반사되는 빛의 모습이다. 그리고 가장 아래 화면은 물속 장면과 그곳에서 얻는 느낌이다. 3점의 캔버스 크기가 똑같이 보이지만 작가의 발에 힌트가 있듯, 28.36·28인 치로 가운데 화면이 2인치 작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

'B.Q.O.'라는 연작 타이틀은 바다를 배경 삼은 소설의 세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 스티븐 크로포프트의 '솔라리스' 주인공 바론의 B, 허먼 멜빌의 '모비 딥' 중 퀴케그에서 Q, 호세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의 O를 따온 것. 각 서사에서 바다와 씨름하는 이 세 명의 영웅은 작가가 2022년 1월 캘리포니아에 박물관이 소장될 때까지는 과원에서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외딴섬에서 작가는 카약을 타거나 수영을 하고, 패들보드 위에서 할 일을 보냈다. 이러한 환경이 놓인 작기에 개 소설 속 세 영웅은 바다가 인간의 고교로부터 은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음을 새삼 상기시

켰다. 바다 대척하는 세 영웅 상상력 자극 팬데믹 기간 물과 가까워지며 할랑 수영하며 본 하늘-수면-물속 장면 등 삼·중·하 3장의 캔버스에 느낌 담아

했다. 부드러운 변화를 지하는 색조와 섬세한 붓질은 추상화의 감각뿐 아니라 물질적 특징성과 물의 본이기를 환기시킨다. 초창기 'B.Q.O.' 작품들이 바다에 대척하는 인간의 신화적 판타지에 집중했다면, 최신 작품들은 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탐구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봉쇄 기간 중 수영이라는 단순하고도 구체적인 활동에 집중했던 작가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코로나19 기간 중 1년의 시간을 작가는 가족들과 함께 샌디에이고에서 보냈다. 샌디에이고는 그가 어릴 때 바다를 처음 만났던 곳이자 그의 노부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곳으로 돌아간 작가는 다시 물과 가까워지면서 그 광활한 바다에서 위안을 찾게 되었다. 이후 작가는 태평양 연안의 라호아(La Jolla) 해변에서부터 코네티컷주의 토브 모트, 뉴욕과 샌디에이고의 실내 수영장들에 이르기까지, 물에 이르기며 물의 표면을 관찰하는 행위와 잠수사에서 즐기기 하듯 물에 대한 스스로의 접근감을 고찰해왔다. 이렇게 작가는 자신의 새로운 관찰사를 오렌 고딤과 점묘화 끝에 자연 세

라호아에 자연은 오렌에 영감이 지워진 순간이 많다. 위의 가운데 화면은 인기에 맞혀 하늘과 수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아래는 수영 도중 머무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상 밖의 장면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그때의 '노출과 어울리는 색을 칠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의 신체를 주요 소재로 한 작업물을 내놓게 됐다.

그는 지난 22년 동안 매주 일요일 하늘을 그려온 '샌디에이고' 연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늘 그리고 함께 일기 및 종이 적혀 있는데, 이로써 그의 작품은 개인적 기록임과 동시에 하늘을 관찰하는 일이 광활한 거리로 떨어진 존재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이자 명상적 고요임을 보여준다.

그의 작업 세계에서 물과구적 지위를 갖게 된 '재유법(Synedexel)'(1991-) 연작 또한 유명하다. 동일한 사이즈 패널 500여개로 구성된 작업에서 단색조의 화면들은 각기 한 인물의 고유한 피부색을 재현한다. 이렇듯 파편화한 신체와 미시화된 표현 언어는 추상화의 역사뿐 아니라

리 재현과 정체성 등의 문제를 감각적으로 서술한다.

그의 '재유법'과 '샌디에이고 연작'이 그러하듯 'B.Q.O.' 역시 끝날 없이 진행되는 연작이다. 작가는 전체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내가 이 세상 속 나머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보다 거대한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의 작품들은 가장 사적인 경험에서부터 인류와 자연 간의 광활한 연결에 이르기까지 양 극단을 아우르며 명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부산관에서 오는 23일까지 선보인다. 서울 도엑스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2023 화랑미술제'에서도 만날 수 있다.

"22년간 매주 '샌디에이고 연작' 삶의 동력이자 정체성 느껴" 바이런 킴 작가

김신성 선임기자

작품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그는 두 눈을 짙게 감고 그 순간의 감정이나 기억을 최대한 끄집어 내며 정원의 모래모래 담판다. 평온 예외다 영문과 출신답게 회상의 길을 찾아내는 도발성의 재미난 습관 같아 보인다. 스킵하진 회화조각회로에서 수백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주로 활동한다. 시카고미술관, 바젤리미술관, 워싱턴 DC 국립미술관,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뉴욕 휘트니미술관 등 명소에 그의 작품들이 걸려 있다. 작가 바이런 킴62도 이야기다.

- '샌디에이고 연작'으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간이 있게 지속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다가 시작하게 됐다. 지금은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야 작가인데, 22년째 매주 실험해온 '샌디에이고 연작'이 이제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하늘을 보면서 멀리 떨어진 곳의 영감이 보인다는 하늘과 같은 하늘일까. 하늘은 진짜 파편처럼가 등 영혼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루 일과가 돼요요에 그런 직감을 있지만 다음 주를 미리 남긴 적은 없었다."

- 물의 출장 중에도 그러하다고 들었다. "이처럼 포인트를 쓰는 이유는 건조가 아니라서다. '샌디에이고 연작'은 'B.Q.O.' 캔버스와 사용한다. 팔공기침 기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어떤 한국 병원에서 2명, 앞서 오주에서 2명을 그렸다."

- 하늘에 이어 바다 연작을 진행하고 있다. 구상 중인 연작이 더 있는가.

"그것 영적인 주제를 원하다 보니 부딪히게 된다. 여정에 동물이나 인간을 묘사한 적 있지만 내 작품 세계의 주제가 놓이지는 못했다. 이미 추상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내뿜을 배우기 시작했단데.

"편은 우수, 얇은 안근처럼 느껴진다. 경우의 수가 많아 신이 만들어낸 개념이라 여긴다. 작은 한 점으로 시작해서 우주를 짓는 것이다."



바이런 킴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성실한 작가다. 동양화가 이어지는 '재유법' '샌디에이고 연작' '바다(海)' 등 연작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성수 기자